

03 2019
VOL.225

언론 사람



04 인터뷰 人+人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06 손거울

‘생각 말고, 시키는 취재만 해!’

10 NEWMEDIA OF THE WORLD

인공지능(AI) 콘텐츠

14 이달의 시

봄이 오는 이치, 봄이 온다는 믿음



CLOSE UP

봄 새싹

어느 봄날 아침 금낭화 새싹이 영롱한 구슬을 한가득 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또르르 굴러 내릴 듯한 물구슬 탓인지,

아니면 온몸을 감싸 도는 봄바람 탓인지

우리의 마음도 터져 나갈 듯 부풀어 오릅니다.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글·사진 이훈구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ufo@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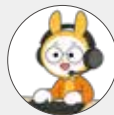
CONTENTS

03 2019 VOL.225

- | | |
|--|---|
| <p>02 CLOSE UP
봄 새싹</p> <p>04 인터뷰 人+人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p> <p>06 손거울
'생각 말고, 시키는 취재만 해!'</p> <p>08 세상사는 法
엄마가 몰래 녹음한 녹음자료는 증거가 될까</p> <p>10 NEWMEDIA OF THE WORLD
인공지능(AI) 콘텐츠</p> | <p>12 트렌드, 트렌드, 트렌드!
2019년 밀레니얼 트렌드 예측 '실감세대'</p> <p>14 이달의 시
봄이 오는 이치,
봄이 온다는 믿음</p> <p>16 내 마음의 활동사진
모든 것을 초월한 단 하나의 사랑
<셰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p> <p>18 NEWS
위원회 뉴스
위원 동정</p> |
|--|---|

발행인 이석형 편집인 권오근 발행일 2019년 3월 1일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T 02-397-3114
F 02-397-3069 A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구독신청 홍보팀 T 02-397-3082~4 편집·디자인 (주)코비즈 T 02-2272-1400
표지 일러스트 Gabriela Dolezelova, <Calla bouquet>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 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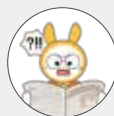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 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 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1 혁명의 정신이 민주주의 정신의 바탕입니다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올해로 우리나라 독립의 상징인 3·1 혁명이 100주년을 맞이했다. 한국 현대사의 주요 고비마다 자리를 지킨

민주화운동의 산증인 함세웅 신부를 만나 민주주의의 바탕이 된 3·1 혁명의 의미에 대해 들어보았다.

진행 남승균(홍보팀 팀장) 사진 및 정리 윤은자(홍보팀 에디터)

Q 올해로 사제 서품 51주년을 맞이하셨습니다. 민주화의 산증인 이시기도 하고, 오랫동안 우리 사회 문제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종교인으로서 사회참여는 어떤 의미를 가 집니까?

A 종교와 사회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때 유럽 그리스도교 문화권에서는 나치의 만행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일부는 나치에 동조하기도 했죠. 그리스도교의 존재 이유는 인류의 구원인데, 폭력적 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 침묵한 것에 대해 세계대전 이후 신학적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가 우리를 강탈했을 때도 하느님께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성서를 통해 불의한 침략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논리를 얻어왔어요. 인간의 구원은 불의한 사회·정치구조의 구원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한복판에 살고 계신 신자들과 함께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역사를 바로 이해하고 공동체를 위한 아름다운 가치관을 후세에게 전달하는 것이 신앙인이자 사목자로서 저에게 부여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Q 민족문제연구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계신데요. 올해로 100주년이 되는 3·1 혁명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는 민주화운동의 큰 물줄기는 항일독립투쟁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20세기 한국 현대사의 뿌리는 일제 강점기 자주성과 인권을 되찾기 위해 독립항쟁을 하였던 분들입니다. 비인권적, 반민주적 독재자에게 항거했던 민주화운동은 항일정신과 맥을 같이 하고 있지요. 항일독립투쟁으로 나타난 민주주의의 첫 물줄기인 '원(源) 민주주의'가 독재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물줄기가 남북평화 공존 운동과 경제 공유 운동, 남녀 차별 타파 운동 등으로 이어져야죠. 이러한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아름답게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물

줄기에 해당하는 항일투쟁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제 항쟁기 최대 규모의 독립 항쟁이 국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일어났던 31 독립 선언입니다. 실제 일어난 투쟁의 규모와 국내에서 지속적인 항쟁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평가와 함께 31 혁명은 독립, 민주주의, 공동체 정신, 국가 사이에 상호 존중과 연대를 통한 평화체제를 선언한 우리 민족의 등불입니다. 100주년을 맞으면서 남북 8천만 겨레가 31 정신으로 평화공동체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는 1990년대 들어 민주화운동을 하였던 분들과 뜻을 모아 시작했습니다. 70·80년대 독재 정권에 항거했을 때 문익환 목사님께서 민주화운동의 근거를 안중근 의사에게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북에서도 안 의사를 상당히 존경합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연계점이 되어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남북 모두 유해 발굴을 시도했지만 못 찾았습니다. 일본인들이 안 의사 묘소를 만들었을 리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김구 선생께서 효창공원에 안 의사의 빈 무덤을 만들고 유해를 찾으려 모시자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허묘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묘비도 없었는데, 보훈처에 요청해서 올해 3월 26일 안중근 의사 순국일에 맞춰 묘비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성서에서 빈 무덤은 예수님 부활을 의미합니다. 비록 안 의사의 유해를 모시지는 못했지만, 안중근 의사를 가슴속에 모시고 그 정신을 본받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Q 정의구현사제단 활동을 통해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평화방송 설립에 앞장서기도 하셨는데요. 신부님께 언론은 어떤 의미입니까?

A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독일 나치 치하 때 감옥에 갇혔던 철학자의 책에서 읽은 구절이 기억납니다.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상한 음식은 피하듯, 소식도 진실하고 참된 소식을 들어야 머리가 맑아지는 것이다. 거짓되

고 나쁜 소식을 들으면 머리가 상한다'는 말이었어요. 언론이 제 자리에 있을 때는 민중을 이끄는 우리들의 스승이고 길잡이지만 잘못하게 될 땐 악마가 될 수도 있죠. 1970년대에도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은 보도하지 않고 황새 다리가 부러진 것만 보도하니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언론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평화방송을 만들었어요. 신학적으로는 언론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더 멀리 보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언론이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을 전하는 성전인 것이죠. 언론과 종교는 말로 사람을 이끌고 통교하는 것이니 같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도 종교와 마찬가지로 선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Q 여성신학에도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접하게 되셨나요?

A 1991년 뉴욕의 메리놀 신학대학에 해방신학을 공부하러 갔다가 우연히 접하게 되었어요. 해방신학은 약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하느님인데 여성신학은 여성의 시각에서 하느님과 성서를 바라본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었는데 해방신학의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가톨릭의 종교관, 역사관에는 남성 중심적인 면이 많습니다. 여성신학은 성서 자체가 가부장적 문화의 산물이기에 성서 본문도 여성의 시각에서 새롭게 읽고 비판하며 종합하고 있습니다. 가부장적 사고를 넘어서 전인적인 인간을 지향하는 것이죠. 주로 미국 수녀님들과 여성 사회학자들이 앞장섰어요. 저는 여성신학자인 엘리자베스 쉬슬러 피오렌자의 저서 <In Memory of Her>(우리말 번역: 김애영 역, 「크리스찬 기원의 여성신학적 재건」, 종로서적, 1986년)를 읽고 깨달은 바가 많았습니다. 말이 여성신학이지 사실은 전인신학이에요. 그래서 여성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시야가 더 넓어졌어요. 이에 저도 하느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시며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올리기도 합니다.

Q 신부님만의 성경 구절이 있으신지요?

A 루카복음 18장 13절 '세리(稅吏)의 기도'가 있어요.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를 왔는데, 바리사이는 단식도 하고 십일조도 두 번 한다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반면 세리는 죄를 많이 지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느님 전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석하시기를 '이 두 사람 중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인정받은 사람은 세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사이는 하느님 앞에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고 자기 자랑을 한 겁니다. 반면 세리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했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신학생 때부터 세리의 기도를 제 길잡이로 삼아왔어요. 사제가 될 때 저의 성서 구절로 뽑았죠. '나는 하느님 앞에 중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죄인이니 고



쳐서 잘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기도할 때 저는 늘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더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Q '3·1 혁명 100주년'을 맞아 언론사람 독자를 비롯하여 젊은 층에게 사회 원로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3·1 혁명에 앞서 1919년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을 선포했는데, 그 주역들은 20·30대 청년들이었어요. 3·1 독립혁명이 가능했던 것도 상해나 연해주에서 독립항쟁을 하였던 20·30대 청년들이 선배 세대를 움직인 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 세대들에게 “너희들 굶어봤어?”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고난받으셨던 선배 세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히브리서 12,4에는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면서 아직 피를 흘리며 죽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나라를 빼앗겼을 때 목숨까지 바치면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당시의 청년들, 일본 땅 한가운데서 2·8 독립선언을 외쳤던 청년들이 바로 그 시대의 선구자들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도 서른 살의 나이에 하얼빈에서 의거를 일으키고 동양평화론을 구상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민청학련 사건을 겪으면서 청년 학생들로부터 감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200여 명 이상의 청년들이 감옥에 갔는데, 그때 대학생들은 졸업만 하면 미래가 보장됐을 때예요. 그런데도 많은 분이 졸업을 앞둔 3, 4학년에 보장된 미래를 다 던지고 감옥에 가면서까지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몸 바쳤거든요. 일제 침략 시대, 독재 시대에 권력에 항거해서 시대를 바꿨던 분들은 10대 후반에서 20·30대 청년 학생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이 많이 힘들지만, 세상을 바꾸는 주역들이 청년들이란 긍지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힘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말고, 시키는 취재만 해!’

글 안형준(방송기자연합회 회장)

언론사에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꼭 필요합니다.

“얘들아 안녕~”

칠판 앞에서 해맑게 인사하는 여성의 나이는 20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턱없이 작은 책걸상에 앉은 중년 남성들이 ‘안녕~’ 하며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천하장사 출신 강호동, 전설의 국가대표 농구센터 서장훈, 영어 잘하는 개그맨 김영철 등 남학생 여섯 명이 앉아 있습니다. 2015년에 시작해 꾸준한 시청률을 유지해온 예능프로그램 JTBC <아는 형님>의 한 장면입니다. 고정 출연진이 모두 남성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진솔한 소재와 복고풍의 아재개그 등이 인기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래도 가장 차별화된 것은 반말을 편히 주고받는 ‘같은 학년 커뮤니케이션’입니다. 20대 전학생이 삼촌이나 아빠 나이인 선배 연예인들에게 편하게 반말로 얘기하면서, 젊은 층의 공감대를 끌어냈다는 분석입니다. 가장 오래된 스포츠 프로그램인 MBC <스포츠 매거진>도 ‘같은 학년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살짝 도입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출연한 전문가들의 이름 끝 자를 별명처럼 부르면서 편안한 대화를 유도합니다.

언론사에 6개월만 먼저 입사해도 후배를 하대하고 명령조로 말하는 것이 일반화된 언론계와는 자못 다른 풍경입니다. 경찰서와 소방서, 응급실을 돌면서 수습기자 생활을 할 때는 더 심하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어떤 선배 기자는 ‘야, 아무 생각 말고 시키는 취재만 해!’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사고 현장을 누비며 팩트의 소중함을 배우지만, 위계적인 상명하복식 커뮤니케이션을 비판 없이 수용하는 타성에 젖게 되는 듯합니다.

연장자가 젊은이를 조건 없이 하대하는, 봉건적 서열문화인 ‘꼰대문화’에 대해 최근 반감이 더 커졌습니다. 일자리가 많은 풍요

로운 세대에 대한 반감이 더해지며,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상사의 권위로 젊은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깔아뭉개는 ‘꼰대’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는 형님>이나 <스포츠 매거진>보다 먼저 기업들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받아들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의 장점을 벤치마킹한 다음카카오 등 여러 한국 IT 기업들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카카오의 한 관계자는 ‘정보 공유’와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기업의 핵심가치라고 설명합니다. 임원이든 신입사원이든 정보를 빠짐없이 공유해야 효율적이고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창립자이자 최대 주주인 김범수 의장은 사내에서 ‘브라이언’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영어 이름을 따로 갖고 있고, ‘남’이나 ‘게서’ 같은 존칭 없이 이름만 부른다는 것입니다. 상명하복을 연상시키는 존칭어를 빼고, 평등하게 소통해야 창의성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실리콘밸리의 기업문화가 정착된 셈입니다.

지구촌 검색 1위 업체 구글의 기업문화는 한 발 더 앞서 있습니다. 젊은 평직원 서너 명이 팀을 이뤄 만든 최초 기획안을 상사들이 수정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고 구글 본사 임원은 귀띔합니다. 중간 보스들이 침묵하면, 참신한 아이디어가 빛을 잃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후배 기자들이 발로 뛰며 쓴 기사를 수정하고 침묵하는데 거침없는, 한국의 일부 고참 기자들이 돌아봐야 할 대목인 듯합니다.

권위적 소통문화는 건강한 토론을 막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독일 베를린에서는 언론의 새로운 흐름을 소개하고 짚어보는 DCX(디지털 콘텐츠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지배하는 언론 생태계, '듀오폴리(Duopoly)'를 벗어나야 한다는 큰 흐름 속에서, 다양한 스토리텔링 시도와 블록체인 기술 적용,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등이 대안으로 논의됐습니다.

언론사 보도국(Newsroom)의 위계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창의적인 취재와 제작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진지하게 논의됐습니다. 현장 기자의 취재 결과를 무시한 선배의 권위가 엄청난 오보로 이어지는 경우가 우리만의 상황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지난 12월, 필자가 몸담고 있는 방송기자연합회 사무국은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각자 '데미안', '엠마' 등으로 영어 이름을 정했습니다. 부장, 국장 같은 직함을 부르거나 '님'이나 '께서'같은 표현을 쓰면 벌금 1천 원을 내야 했습니다. 어색함은 침묵으로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나아졌지만, 선배를 영어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나마 SNS에서는 영어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작은 실험의 진정성은 일부 언론사 편집국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경제전문매체에서 팀장을 맡은 한 후배 기자가 실험에 동참했습니다. 서른 전후 후배들과 소통이 안 되는 답답한 상황을 돌파하려는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은 컨베이어벨트가 돌아가는 제조업 현장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아이폰

으로 유명한 애플도 수평적 소통을 충분히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마감과 뉴스 시간에 쫓기는 언론사 역시, 어찌 보면 컨베이어벨트가 돌아가는 제조업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와 제작은 아이디어와 지식으로 승부하는 IT적인 측면도 강합니다. 대형 사고가 나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하는 사회부 경찰팀처럼 선배의 권위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탐사와 기획취재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나 언론사에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꼭 필요합니다. 권위적 소통문화는 자칫하면 건강한 토론을 막고, 권력에 불리한 아이템을 강압적으로 없애는 도구로 전락합니다.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2010년을 전후해, 여러 시사 프로그램은 4대강 아이템을 거의 다루지 못했습니다. 아이템 회의를 이끄는 데스크나 부장이 권위와 강압으로 합리적 토론을 막고 아이템을 캐비닛에 넣었습니다. 그래도 저항하는 후배 기자는 다른 부서로 인사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보도국과 편집국에서 동료들끼리 상처를 주는 명예훼손과 인격 모독성 발언이 하루빨리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명령형 대신 청유형 대화가 넘쳐나고, 아이템과 사건을 보는 관점에 대해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이 날마다 이어지는 날을 꿈꿉니다.

엄마가 몰래 녹음한 녹음자료는 증거가 될까

글 김주연(김주연 법률사무소 변호사)

워킹맘에게는 3대 복이 있다. 남편 복, 자식 복 그리고 아이돌보미 복이다.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기는 그만큼 어렵다. 엄마 A도 생후 10개월 된 아이 B를 아이돌보미 C에게 맡기면서 걱정이 많았다. 아직 말도 못 하는 아기였기 때문에 자신이 집을 비우는 동안 C가 잘 보살펴 주는지 물어볼 수도 없었다. 그래서 집에 몰래 녹음기를 켜두었다. 그런데 나중에 녹음기를 확인해보니, 엄마가 없는 동안 아이돌보미 C는 아기 B에게 “미쳤네. 울고 지랄이고” 등과 같은 욕설을 하고, B가 울고 있는데도 아이는 방치한 채 자신은 TV만 보고 있었다.

C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1심에서는 뜻밖에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A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기 때문에 녹음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1심에서는 엄마 A가 아이돌보미 C와 아기 B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해당 녹음물을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과 예외

아마도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뭐 이런 법이 있느냐고 격분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에서 연유한 것이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만약에 이런 대원칙이 없다면 수사기관이 고문이나 함정수사를 불사하고 일단 증거물을 확보하려고 시도할 위험이 높아진다.

사인(私人)의 비밀녹음은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이 아니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는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따로 규정을 두어 대화의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녹음으로 취득한 녹음물을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여하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와 관련하여 엄격하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2심으로서의 아마도 고민이 깊었을 듯싶다. 사실 ‘타인 간의 대화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해 법원에서 지금까지 다뤄진 적이 있었으나, 대부분은 녹음자가 대화에 참여하였다고 볼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가령 휴대폰으로 통화 종료 후 상대방이 끊기를 기다리던 중에 통화 상대방이 전화가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녹음한 사례에서는 녹음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보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본 적이 있는 반면, 대화의 주요 당사자가 있었던 상황에서 녹음자가 옆에서 형식적인 안내 정도를 하는 부수적인 역할이었던 경우에는 녹음자가 대화에 일부라도 참여를 했으므로 당사자의 녹음이라고 보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그렇지만 위 사례는 A가 대화 당사자가 아님이 분명했다. 그리하여 2심은 아이가 생후 10개월로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따라서 아이돌보미와 아이가 ‘대화’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가 녹음한 것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 단지 아이돌보미 C의 아동학대 상황일 뿐이라고 보았다. ‘타인 간의 대화’란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

는 의사소통행위라고 할 것인데, B는 C와 말을 주고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A가 녹음한 것을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닌 것으로 보게 되면서, 재판부는 해당 녹음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고, 비로소 C는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다.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검토 필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공익적인 측면으로도 설명했다. 언어능력이 없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는 몰래 녹음하는 이외에 증거를 수집할 방법이 없는 데다가, 아동학대 범죄를 막아야 하는 공익은 너무 큰데 이를 비밀녹음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 아이돌보미는 계약에 따라 A의 집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이런 상황에서 아이돌보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만약 아이돌보미 C가 엄마 A에게 비밀녹음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그때도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이 큰 문제가 될까?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증거 채택에 대해 자유심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분명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몇 년 전,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한 D는 배우자 자동차에 녹음장치를 몰래 부착했다. D는 배우자와 상간자 E 간의 불륜 사실이 드러나는 대화를 녹음해서, 상간자 E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E는 녹음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오히려 D에게 불법녹음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녹음물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취득한 것이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았고, E에게 부부 사이의 파탄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3천만 원을, D에게는 불법으로 대화를 녹음한 책임을 물어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는 수집의 불법성을 문제 삼아 증거능력을 부인한 사례는 거의 없는 듯하다. 그렇지만, 하루가 다르게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사생활의 보호 필요도 커지고 있음을 고려하는 민사소송에서도 증거 수집을 위해 행해진 불법과 해당 소를 통해 지키고자 하는 법익을 형량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논의가 한 번쯤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인공지능(AI) 콘텐츠

글 배기형(KBS 월드사업부 PD)

인공지능과 콘텐츠 산업이 만나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인간 아닌 것이 마치 인간처럼 생각하고 느끼며 인지 능력과 학습 능력을 보유한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인공지능은 이세돌을 이긴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 구글의 자율주행차, 아마존의 음성비서 '알렉사' 등일 것이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이미 우리 생활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스마트 미디어, 로봇 청소기, 스마트 헬스 기구 등 우리 생활 속에서 친숙하게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다.

인공지능은 정보의 보유량과 처리 속도에 있어서 놀라운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스스로 학습하여 의미를 찾는 능력마저 갖추고 있다. 애플의 '시리', 구글의 '구글 나우', 아마존의 '에코', SK텔레콤의 '누구' 등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계속적으로 학습하여 스스로 개선되어 가는 인공지능 디바이스들이다. 음성인식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이 가능한 인공지능은 똑똑한 비서 역할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경쾌한 음악 틀어줘" 하면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늘 날씨는 어때?"라고 물어보면 날씨 정보를 알려준다. 음악, 날씨뿐 아니라 알람, 내비게이션 기능, 뉴스 제공, 스케줄 관리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또한, 가정의 여러 사물인터넷 장치를 통제하는 스마트홈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서비스는 데이터 활용에 그 기반을 두고 있지만 향후에는 고도의 지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창작의 영역에까지 확장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로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지는 창작물을 보면 인공지능이 인

간의 '감정'까지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면서 인간의 직관까지 흉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인공지능이 콘텐츠 산업에서도 주목받는 이유이다.

콘텐츠 산업 전 분야에서 활약하는 인공지능

구글은 인공지능이 음악과 같은 예술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젠타(Magenta)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마젠타 프로젝트의 결과로 인공지능이 만든 80초 분량의 피아노곡을 발표했다. IBM은 100편의 공포 영화 트레일러를 미리 학습시켜 인공지능 왓슨(Watson)으로 하여금 AI를 다룬 20세기 폭스사의 SF 스릴러 <모건 (Morgan)>의 예고편을 만들었다. 영국의 스타트업 주크덱(Jukedek)도 인공지능을 이용해 50만 곡의 오리지널 음악을 제작했다.

일본 하코다테 미래대 교수팀은 인공지능이 일본 유명 SF 작가 호시 신이치의 단편 소설을 학습하도록 하여 니혼게이지가 신문이 주최하는 소설 공모전에 출품한 '컴퓨터가 소설 쓰는 날'이 1차 심사를 통과하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인공지능이 쓴 시집도 나왔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인공지능 '샤오빙'은 'AI 베이징'이란 노래 가사를 만들었는데, AI를 인공지능으로 읽을 수 있고, 또 중국어로 사랑을 뜻하는 '아이(爱)'로도 읽을 수 있어, 자유롭게 언어유희를 부리는 경지까지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한 예술 단체에서는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해리 포터>의 후속편을 쓰게 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한, 미국 MIT 공대에서는 셀리



Google 'Magenta Project' - 피아노곡 발표





IBM의 AI '왓슨' - 20세기폭스사의 영화 <모건(Morgan)>의 예고편 제작

(Shelley)라는 인공지능을 개발하였다. '셸리'라는 이름은 공포 소설인 <프랑켄슈타인>의 작가 메리 셸리에서 따온 것으로서 셸리는 소설 가운데에서도 공포 소설 장르에 집중하여 글을 쓴다. 재미있는 것은 셸리가 인간과 협력하여 소설을 쓴다는 것이다. 셸리는 소설 미디어 플랫폼인 트위터에서 인간 사용자와 함께 공을 주고받듯이 한두 문장씩을 인간 사용자와 함께 주고받으며 소설을 써나간다.

미국에서는 상당수 매체에서 인공지능이 기자들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미국 포브스의 '퀄', 워싱턴포스트의 '헬리오그래프', AP 통신의 '워드스미스'가 대표적이다. 인공지능 즉, 로봇 기자들은 애초 스포츠 경기의 결과나 증권 정보 같은 단신 위주로 기사를 제공했다. 그렇지만 점차 인공지능 로봇이 인터넷의 수많은 게시물을 살펴보고 그날의 이슈를 파악하고 자신이 쓸 뉴스 아이템을 스스로 결정하고 기사를 쓰게 되었다. 정보 수집이나 인간보다 빠른 시간 내에 기사를 작성하는 속도감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일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놀랍다. 매우 똑똑한 인공지능인 것이다. 이런 '똑똑함'을 무기로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이라 불리

는 업무에서도 인공지능이 활약하기 시작했다.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Thomas Frey)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로봇의 발전으로 20년 후에는 기자라는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또 로봇이 쓴 기사를 판매하는 내러티브 사이언스(Narrative Science) 최고기술책임자(CTO) 크리스 해먼드(Kris Hammond)는 2030년이면 전체 기사의 90% 이상을 로봇이 작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람과 인공지능이 만드는 콘텐츠의 미래

그야말로 '인공지능 우선(AI First!) 시대'라 할 만하다.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는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에 몸과 마음을 의지하고 인공지능과 함께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을 나눌지도 모르겠다. 인공지능은 앞으로 피할 수 없는 우리 삶의 필수 장치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해서 기존 콘텐츠의 맥락을 이해하여 창작의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데이터화된 기존 콘텐츠의 패턴을 분석하여 만든 결과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콘텐츠 창작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기보다는 인간의 창의성을 고양하고 확대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통해 통찰의 능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은 이를 다시 학습하여 인간의 창조성을 확장하는 것만이 오롯이 즐거운 상상이다.



2019년 밀레니얼 트렌드 예측 ‘실감세대’

글 이재훈(대학내일20대연구소 책임연구원)

2019년, 새해와 함께 밀레니얼과 Z세대에 대한 기획 기사가 쏟아지고, 기업들도 이들을 공략할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구매력 낮은 미래 고객’ 정도로 여겨졌던 밀레니얼과 Z세대가 X세대의 구매력을 뛰어넘어 향후 20년간 대한민국의 소비를 이끌 세대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인구의 25.6%를 차지하는 밀레니얼과 Z세대는 이제 잠깐 흥하고 마는 유행이 아니라 경제 지형까지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닌 소비층이며, 앞으로의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선 이들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다. 밀레니얼과 Z세대가 어떤 것에 열광하고, 또 지갑을 여는지 살펴보자.

지난해 가장 인기 있었던 영화로 단연 <보헤미안 랍소디>를 꼽을 수 있다. 누적 관객 수 993만 명을 기록했을 정도이니 신드롬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밀레니얼과 Z세대가 있었다. 쿼터 전성기를 누릴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이들은 전체 관객의 58.5%를 차지하며 쿼터 세대인 4050 세대보다 적극적으로 영화를 즐겼다. 밀레니얼과 Z세대가 <보헤미안 랍소디>에 열광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싱어롱(Sing-Along) 상영’이다. 가만히 앉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을 추며 즐기는 낯설고 실감 나는 관람 경험이 이들에게 매우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오감을 충족시키는 낯선 경험에 매료된 밀레니얼과 Z세대는 분위기가 열광적인 상영관을 찾아다니며, 몇 번이고 재관람에 나서기도 했다.

밀레니얼과 Z세대가 자주 찾는 핫플레이스에도 낯설고 실감 나는 경험이 녹아들고 있다. 최근 이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곳은 ‘을지로’다. 노포와 인쇄소가 즐비해 트렌드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곳은 매일 저녁 골목 사이에 숨어

있는 카페와 음식점을 찾는 밀레니얼과 Z세대로 붐빈다. 을지로의 카페에 방문했음을 인증하는 인스타그램 게시글도 21만 건이 넘는다. 1970~80년대 식기류, LP판, 개다리소반 등 빈티지한 소품으로 꾸며진 을지로의 카페들이 이를 경험해보지 못한 밀레니얼과 Z세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VR 체험카페’나 ‘방탈출 카페’, 사진사가 아니라 직접 내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셀프 스튜디오’ 등 색다른 공간에서 오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체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사업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밀레니얼과 Z세대가 열광하는 것들은 오감으로 실감할 수 있는 낯설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밀레니얼과 Z세대는 그 어떤 세대보다 다채로운 자극에 노출되어 있는 세대다. 유튜브 1분마다 400시간, 하루 65년 분량의 영상 콘텐츠가 업로드될 정도로 온라인 콘텐츠 시장은 비약적인 발달을 이루었으며, 클릭 한 번으로 지구 반대편의 밀리를 생생히 탐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생생하고 자극적이라도 간접 자극만 제공하는 걸핍기식 경험은 늘 새롭고 낯선 자극을 쫓는 밀레니얼과 Z세대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밀레니얼과 Z세대는 모든 감각을 만족시



공연을 즐기듯 영화를 보는 경험은 밀레니얼과 Z세대에게 신선하고 매력적인 경험이다.

밀레니얼과 Z세대가 열광하는 것들은 오감으로 실감할 수 있는 낯설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밀레니얼과 Z세대는 그 어떤 세대보다 다채로운 자극에 노출되어 있는 세대다.



1970~80년대 다방처럼 꾸며져 있는 울지로 카페 '백두강산'

키는 더 크고 낮은 자극을 찾아 오프라인으로 나서고 있다. 대학 내일20대연구소는 이런 밀레니얼과 Z세대의 특성을 '실감세대'로 정의하기도 했다.

'실감세대'인 밀레니얼과 Z세대는 전시문화도 바꾸어 놓았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조사 결과, 밀레니얼과 Z세대는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도 컨셉트에 맞게 꾸며져 있는 전시(94.4%)를 선호했으며, 직접 만져보며 체험할 수 있는 전시(40.6%)를 원하기도 했다. 전시회를 관람하는 목적도 기존의 정보 습득 목적(18.8%)보다 색다른 체험을 하고 싶다(26.8%)는 니즈가 더 컸다. 지난해 디뮤지엄 <weather :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떤가요?> 전시회는 비, 안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를 제공해 밀레니얼과 Z세대의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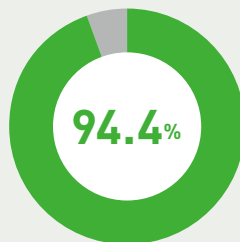
기업들도 '실감세대'를 사로잡기 위해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체험 마케팅에 적극적이다. 명동 뷰티숍 '비브라스'는 매장에서 제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브 공연, 원데이 클래스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교보문고는 문학작품의 감성을 구체화시킨 '북퍼퓸'을 출시해 책을 시각뿐 아니라 후각으로도 느낄 수 있는 신선한 경험을 제공했는데, 론칭 후 2만 개가 넘게 팔리는 인기를 끌었다. 의류브랜드 울리치(woolrich)는 플래그십 스토어 한 칸에 흑한의 상황을 재현한 부스를 설치해 패딩의 방한력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2019년에는 보다 더 생생하고 오감을 자극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과 브랜드가 '실감세대'인 밀레니얼과 Z세대의 취향을 저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험형 전시를 선호하는 밀레니얼과 Z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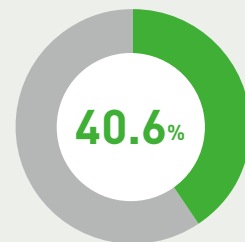
(base : 최근 1년 내 전시회 관람 경험이 있는 20대 응답자, n=537)

<선호하는 전시 유형>

전시 공간까지
컨셉트에 맞춰 꾸며진
전시회가 좋다



직접 참여하거나
체험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좋다



<전시회를 관람하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

순위	내용	비율
1위	여가시간을 즐기고 싶어서	34.8%
2위	색다른 전시 및 공간을 체험하고 싶어서	26.8%
3위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를 얻고 싶어서	18.8%

출처 :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대 전시회 및 페스티벌 문화 향유 실태조사>(2017. 9.)



봄이 오는 이치, 봄이 온다는 믿음

글 정효구(충북대학교 교수, 문학평론가)

봄만큼 기다려지는 계절도 달리 없을 것입니다. 무겁고 차가운 침묵의 겨울날은 누구에게도 친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평생 그려온 저의 지인이자 한 화가는, 정담을 나누는 사석에서 사람들은 봄이라는 계절 앞에만 '새'라는 접두사를 붙여서 쓴다고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새여름, 새가을, 새겨울이란 말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독 봄 앞에만 '새'자를 붙

여서 '새봄'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봄은 그토록 우리에게 기다려지는 계절이고 새봄은 '첫'기운을, '새'기운을, 사람들에게 반갑게 전달합니다. 그 봄 앞에서, 아니 새봄 앞에서 우리는 흥분하며 겨울날의 묵었던 마음을 한껏 펴고 밝힙니다. 그리고 김유정의 소설 작품 <봄봄>의 제목처럼 봄은 한 번 발음하는 것만으로 그 반가움을 표현하기 어려워 '봄봄'이라고 반복하여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입춘(立春)과 우수(雨水)가 지나고 곧 3월의 경칩(驚蟄)도 찾아올 것입니다. 농부들은 씨앗을 고르기 시작할 것이고, 모든 학교는 새내기들을 품어 안을 것이며, 직장인들은 책상 주변을 정리하면서 새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모두들 새봄과 더불어 다시 시작하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지요.

이 시를 쓴 박재삼(1933~1997) 시인은 계절에 관한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자연의 대표성을 띤 사계절이야말로 그에게는 천지와 우주와 삶의 이치를 알려주는 기호이자 텍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봄에 관한 시가 적지 않은데 이 시 <봄바람의 이치>는 특별한 울림을 전달합니다.

이 시에서 계절을 주관하는 주인공은 '하늘'입니다. 사실 계절은 지구별

봄바람의 이치

박재삼

그 괴롭고 지겨운
찬바람만 췌췌 보내던 하늘에서
이제 신기하게도
그것을 많이 누그렘히더니
남쪽 바닷가에서나
연약한 풀잎 근처에 와서는
그동안 잘못했다고
한정없이 빌며
이렇게 부드러운 바람을 빚고 있는
눈물겨운 기적을 느껴 보아라.

이 잘못을 용서해주기 바라는
그 하늘이 차츰
화창한 기운을 찾고서야
세상은 어느새 풀리고
비로소 바쁘게 우리 앞에
봄 천지가 열리노니.

- <허무에 관해(시와시학사, 1993)>에서

에 '천시(天時)'를 알리는 징표이지요. 그런 하늘을 향하여 시인은 아주 흥미로운 태도를 보입니다. 겨울 내내 찬바람만 췌췌 보내던 하늘이 무슨 일인지 그 기운을 서서히 누그러트리면서 남쪽 바닷가라든지 연약한 풀잎 주변 같은 데 와서 한정 없이 잘못했다고 빌며 부드러운 봄바람을 빚어내는 기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기적을 '눈물겨운 기적'이라고 말하며 봄소식의 감동에 젖어듭니다.

더 나아가 제2연을 보면 하늘은 용서를 바라며 화창한 기운을 찾았고 그 바람에 세상은 어느새 풀리면서 인간의 세상 앞에 '봄 천지'를 바쁘게 열어놓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가 아니더라도, 생각해보면 봄은 하늘이 만들어내는 기적입니다. 하늘의 마음과 시간표가 봄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이 봄을 우리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지요. 겨울의 끝자락에서 새봄을 언어로 성급하게 불러내기도 하고, 그 새봄의 꽃들과 풀들을 상상하며 창문을 미리 넓게 열어놓기도 하고, 점점 온화해지는 공기 속에서 새사람이 된 듯 이전보다 평화롭고 너그러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박재삼 시인의 봄을 노래한 다른 작품도 함께 읽어보면 좋습니다. 그는 <봄맞이 감격>에서 봄에 대한 감격과 찬탄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이런 곳에 두루 / 하늘의 손길이 미쳐 / 세상은 바야흐로 숨을 트고, / 아, 해마다 보내주는 이 감격을 // 그럴 수 없이 고마워하는 것이 / 쌓이고 쌓여 / 나이 육십에 / 그 은덕에 제일 귀한 눈물을 비치노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무언(無言)으로 오는 봄>에서 이렇게 봄을 노래합니다. '그 무지무지한 / 추위를 넘기고 / 사방에 봄빛이 깔리고 있는데 / 할 말이 가장 많을 듯한 / 그것을 그냥 / 눈부시게 아름답게만 치르는 / 이 엄청난 비밀을 / 곰곰이 느껴 보게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봄이 오지 않는 새해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봄이 올 것을 믿으며 우리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봄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만큼 우리를 안심시키는 큰 믿음도 달리 없을 것입니다.

곧 3월입니다. 봄은 따스한 바람을 소식처럼 세상으로 배달할 것입니다. 이 봄소식 속에서 모두가 선인(善因)을 뿌리고 가꾸는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한 단 하나의 사랑

〈세이프 오브 워터 : 사랑의 모양〉

글 윤성은(영화평론가)



사랑에도 형태가 있을까? 만약 사랑이 물(Water)과 비슷한 물성(物性)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담겨 있는 그릇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모양을 갖게 될 것이다. 어떤 과상하고 생소한 모양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물일 뿐이다.

〈세이프 오브 워터 : 사랑의 모양〉(이하 〈세이프 오브 워터〉)은 항공우주연구센터의 청소부인 ‘엘라이자’(샬리 호킨스)와 아마존에서 발견된 괴생명체(이하, ‘그’)의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사랑의 모양’이라는 부제가 붙은 한국 제목이 친절하게 부연하

는 것처럼 사랑은 타인의 관점으로 함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품고 있다. ‘사랑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연애담의 서사(敍事)가 대개 만남, 연애, 갈등, 재회 등으로 이어지므로 누군가에게는 늘 똑같다고 여겨질지 모르나 캐릭터와 세팅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변주되므로 각각의 러브 스토리는 다른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세이프 오브 워터〉의 사랑과 사랑 이야기는 신비롭고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 모두에 내재한 결핍과 다름

엘라이자는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으며, 목에는 세 줄기의 긴 흉터가 있다. 장애인에 청소부라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를 이해해주는 옆집 남자 ‘자일스’(리처드 젠킨스)와 직장 동료 ‘젤다’(옥타비아 스펜서) 덕분에 그녀의 일상은 그리 저력 큰 어려움 없이 흘러간다. 그러던 어느 날, 엘라이자는 연구소에 잡혀온 ‘그’를 만난다. 전체적으로 사람의 모습이지만 물고기처럼 비늘이 몸을 뒤덮고 있는 ‘그’는 원주민들이 신으로 여겼을 만큼 비범한 존재다. 자신은 물론 타인에 대한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생명체이며,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기 전에는 온순하다는 점에서 ‘그’는 <아바타>(제임스 카메론)의 나비족들처럼 ‘자연’이라는 거대한 메타포이기도 하다. 지능과 소통능력을 갖추고 있고, 음악과 미술에 감흥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인간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를 함부로 다루는 관료들의 모습이 오히려 무지하고 미개하게 묘사된다. 엘라이자는 처음에 연구소 관리자인 ‘리처드’(마이클 새넌)에게 고문당하는 ‘그’가 가엾기도 하고 ‘그’ 또한 자기처럼 외로운 존재일 것이라는 동질감 때문에 호의를 베풀지만, 친밀해진 후에는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모험을 감행한다. 엘라이자와 ‘그’가 계란과 재즈를 매개로 교감하는 장면은 여느 연인들이 가까워지는 단계처럼 훈훈하고 로맨틱하게 연출되었다.

그러나 연인에게는 어김없이 시련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엘라이자와 ‘그’ 사이에 놓인 첫 번째 장애는 ‘그’를 해부해 연구 자료로 사용하려는 정부의 계획이다. 엘라이자는 자일스와 함께 구출 작전을 계획한다. 여기에 젤다가 합류하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이 한 팀을 이루는 것은 당시의 모든 마이너리티를 조합한 것과 같다. ‘실직’한 ‘아티스트’이자 ‘게이’인 자일스, ‘흑인’, ‘여성’인 젤다는 엘라이자를 도와 또 한 명의 약자인 ‘그’를 연구소에서 빼내온다. 이 작전에는 소련의 첩자이면서 ‘그’를 살려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호프스테틀러’(마이클 스틸버그) 박사도 큰 몫을 한다. 자일스, 젤다, 엘라이자가 처음에 태생적으로 소수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공감대 때문에 ‘그’를 살리는 데 더 적극적이었다면, 호프스테틀러 박사는 반듯한 신념 때문에 마이너리티의 길을 선택한 경우다. 미국과 소련의 살벌한 기술 전쟁 가

운데서도 그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고 실천하려는 인물이다. 이들이 뭉쳐서 해낸 일은 우습게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특수부대 10명의 작전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소통의 진정한 근원을 찾아서

그렇게 엘라이자와 ‘그’는 일시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장애를 극복하고 행복한 한때를 보내지만 곧 두 번째 시련에 맞닥뜨린다. 그것은 이 연인들이 다른 종(種)에 속해 있다는 보다 근본적인 한계로, 이제 이들의 이별은 불가피해 보인다. 엘라이자는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그를 보내주려 한다. 이별을 앞두고 엘라이자가 식탁에서 ‘그’에게 사랑 노래를 불러주는 상상 신은 관객들에게 <세이프 오브 워터>가 심각한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영화가 아니라 부드럽고 애뜻한 러브스토리로 남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 갑작스러운 뮤지컬적 요소가 다소 튀기는 하지만, 낭만적인 선율과 어우러진 “당신은 모를 거예요. 얼마나 그리워하는지(You'll never know just how much I miss)”라는 가사의 기능은 명확하다. 잔혹한 장면이 몇 번 등장하기는 해도 전반적으로 소수자들을 향한 차별과 인권의 문제를 동화 같은 톤 앤 매너로 풀어낸 감독(기예르모 델 토로)의 노련함이 돋보인다.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 내레이션을 삽입하면서 두 연인의 이야기를 아주 오래된 전설처럼 들려준 액자식 구성도 같은 맥락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엘라이자는 자일스에게 ‘그’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말한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도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정의(定義) 그리고 인간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정의(正義)의 문제를 재고하게 하는 명대사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사랑에는 관용이 흐르고 인간에게는 품위가 쌓이는 사회를 갈망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위원회 뉴스



2019년 정기총회 개최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2월 25일 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2018년 사업에 대한 감사보고(감사 김철웅 위원, 이미현 위원)에 이어 2018년 사업에 대한 실적 보고 및 결산과 2019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이 승인됐다.



이석형 위원장 <청년언론최고위과정> 강연

이석형 위원장은 2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언론최고위과정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청년언론최고위과정은 언론에 관심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으로, 30여 명이 강연을 수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강의에서 뉴스 콘텐츠 소비 방식의 변화와 가짜뉴스, 혐오표현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시정권고소위원회 시정권고위원 선출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김영학 위원(서울제2중재부장)이 중재위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이우철 위원(서울제2중재부장)을 후임 시정권고위원으로 선출했다.

중재부	성명	현직	임기
서울제2중재부	이우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9. 2. 25.~2019. 9. 16. (전임자 잔여임기)

2019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 출범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오는 4월 3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2019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출범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월 7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이용성 위원(한서대 미디어센터장)을 심의위원장, 김영철

위원(전 충북선관위 사무처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90일간 운영되며,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 등에 게재되는 선거기사의 공정성·형평성 등의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2019년 제1차 예비법조인 연수 실시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2월 11일부터 2월 15일까지 2019년도 제1차 예비법조인 연수를 실시했다. 43명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참여한 이번 연수에서는 이석형 위원장이 '언론분쟁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연수는 언론법제 및 조정·중재에 관한 특강과 분쟁해결 실무 체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연수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명예훼손, 손해배상 등을 주제로 모의조정을 실시했다.

위원동정

중재위원 사퇴

2월 25일자 법관 인사로 인해 중재위원직을 사퇴한 중재위원은 아래와 같다.

중재부	성명	재임 중 소속 직위	전입법원 및 직위
서울제1중재부	최석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서울제3중재부	김영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대구중재부	강동명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
경기중재부	권덕진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제주중재부	김진영	제주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주정민 위원, <방송의 정의> 세미나 개최

주정민 위원(광주중재부,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국방송학회 회장)은 2월 1일 프레스센터에서 <방송이란 무엇인가? : 방송의 정의를 돌아보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방송법상 방송의 범위와 새로운 플랫폼의 법적 수용 여부 등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강소영 위원, '대한민국 인물대상' 수상

강소영 위원(서울제7중재부, 서울디지털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은 1월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년 제18회 대한민국 인물 대상' 시상식에서 학술·신문방송학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 및 총회 수상

양소영 위원(서울제2중재부)은 2월 18일 대한변협 '올해의 우수변호사'로 선정됐다. 한편 25일 열린 대한변협 총회에서 진형혜 위원(서울제1중재부)과 황선철 위원(전북중재부)이 공로상을, 김영미 위원(경남중재부)과 이용재 위원(강원중재부)이 표창을 수상했다.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언론중재

인터넷보도로 인한 피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피해구제가 생명입니다.

인터넷보도에 대한 조정신청의 경우, 언론중재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정·반론·추후보도 및 손해배상 외에도 다양한 구제방안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피해구제건수

1,816

※ 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처리결과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구제건수와
피해구제 형태의 합계는 불일치

피해구제의 형태

899
(47.5%)

보도문 게재
(정정·반론·추후 등)



29
(1.5%)

손해배상



277
(14.6%)

기사 수정



578
(30.5%)

기사 열람·검색 차단



111
(5.9%)

기타



2018년의 경우 기사 수정이나, 기사 열람·검색 차단으로 피해가 구제된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기반 매체가 급증하면서 기사 수정, 기사 열람·검색 차단이 인터넷보도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올해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피해구제 방안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미디어와 인격권> 제5권 제1호 논문 공모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5권 제1호에
수록할 논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투고 바랍니다.



공모 분야

1. 기획논문

주제 - 혐오 표현과 사회적 갈등 그리고 미디어 역할(연구제안서 제출 필요)

2. 연구논문

표현의 자유, 인격권, 언론윤리, 미디어 법제 등 <미디어와 인격권>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
전반(언론법제 관련 판례 평석 포함)

응모자격

1. 언론학 및 법학 관련 학회 회원
2. 관련 분야의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종사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등

제출 마감

1. 기획논문

제안서 제출 마감 - 2019년 3월 8일(금)까지

논문 제출 마감 - 2019년 5월 15일(수)까지(제안서 채택자에 한함)

2. 연구논문

제출 마감 : 2019년 5월 15일(수)까지

논문 접수

이메일 접수(journal@pac.or.kr)

- *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를 참고하시거나 연구팀(02-397-3042)으로 문의바랍니다.
- *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은 등재후보학술지입니다.